

禪, 산에서 광장으로

‘산중’ ‘은둔’ 고정관념 타파
무차대회서 새면모 보인다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무차대회)’가 열리는 5월16일, 광화문광장은 20만 불심(佛心)의 물결로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 무엇보다 진제 종정예하의 범어를 통해 종단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진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으리란 기대가 높다.

간화선은 가장 뛰어난 수행법으로 회자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외려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심어졌다. 심지어 종단 소속 선원조차 안겨 때면 간화선이 아닌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을 택하는 수행자들이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무차대회를 통해 산중에서 은둔하는 선(禪), 특별한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신비한 선이라는 편견을 깨겠다는 것이 종정예하의 확고한 의지다. “꿀이 달고 소금이 짠 것을 안다면 누구나 뒤을 수 있는 수행법”인 간화선의 참맛을 전수할 계획이다. 불교수행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있는 오세훈 담임박사대표는 “서구에서도 남방불교나 티베트불교가 대세일 뿐 한국의 간화선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에 대해 인지하고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무차대회의 백미는 단연 종정예하

의 법어다. 평소 강조하는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래진면목(本來真面目)’ 화두를 던지며 완전무결한 ‘참나’에 대한 통찰을 주문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드는 법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당나라의 재가(在家) 선지식이었던 방거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언어분별을 벗어난 이른바 격외(格外)의 경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곧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가르치되, 광장에 모인 20만 사부대중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하는 법문이 되리란 관측이다. 서울 조계사 신도 차동욱 씨(54, 범법 보명)는 “간화선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 지름길)이지만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며 “종단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 공인된 종정예하의 설법을 듣는다면 좀더 수월하게 수행에 입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참나를 깨우치면 세계평화까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종정예하의 일관된 지론이다. 결국 무차대회를 계기로 간화선이 광장에 입하는 이유는, 수행이 개인의 안락을 포함해 공동체의 안녕에 총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무차대회에 대해 “선을 추상적이고 현학적으로 이해하는 정서를 극복하고 대중에게 행복과 관련한 실질적인 길잡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천진불과 함께’ 조계사 동자승들이 지난 1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달달하게 만든 브로콜리 주스를 권하며, 단주를 직접 채워주고 선물을 나눠줬다. 저절로 함박웃음 짓게 하는 동자승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관련기사 3면

“네팔 2차 지원은 장기적 재건 초점”

긴급재난구호봉사단 귀국 보고회
주한 네팔대사 총무원 찾아 인사

네팔 지진 참사 이후 발빠른 구호활동을 펼쳤던 조계종이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장기적인 2차 지원에 나선다. 네팔 지진 긴급구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스님)이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귀국 보고회를 갖고 구호활동 및 향후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간 오지마을인 신두팔촉 지역 5개 마을에 쌀과 밀가루 비누 등 비상식량 및 생필품을 든 5000여 개의 긴급구호물품 키트를 배분하고 이날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카랑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 라자 람 버포울라 공사의 예방을 받고 네팔 지진 참사와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예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종단에서도 네팔 지진 소식을 접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계속 모금을 펼치고 계획을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랑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는 “네팔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해 지진 참사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가 네팔에 있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긴급구호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네팔의 인연이) 더 가깝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 지진 참사 이후 발빠른 구호활동을 펼쳤던 조계종이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장기적인 2차 지원에 나선다. 네팔 지진 긴급구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스님)이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귀국 보고회를 갖고 구호활동 및 향후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간 오지마을인 신두팔촉 지역 5개 마을에 쌀과 밀가루 비누 등 비상식량 및 생필품을 든 5000여 개의 긴급구호물품 키트를 배분하고 이날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카랑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 라자 람 버포울라 공사의 예방을 받고 네팔 지진 참사와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예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종단에서도 네팔 지진 소식을 접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계속 모금을 펼치고 계획을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랑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는 “네팔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해 지진 참사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가 네팔에 있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긴급구호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네팔의 인연이) 더 가깝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8회 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 확정
운영위원회, 9월1~3일 작품 접수

전문문화유산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할 역량 있는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2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이 확정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최근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불교미술대전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작품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모든 작품은 응모원서, 출품자 경력서, 작품설명서 2매 등 제출서류와 실제 작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공동작업이라도 응모자는 1명만 명기해야 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10월 초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대상(1명)에 1500만 원, 최우수상(2명)에 500만 원, 우수상(3명)에 300만 원, 장려상(6명)에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11월25일부터 12월8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허정철 기자 hic@bulgyo.com

“템플스테이 미래 함께 이끌어가요”
불교문화사업단 지도법사 양성교육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미래를 이끌 스님을 찾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오는 6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예비지도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구족계를 수지하고 템플스테이 운영에 관심 있는 스님과 신규 지도법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템플스테이 사업 이해, 운영매뉴얼, 진행기법, 프로그램 기획,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 이론 중심으로 전개된다.

동참하고 싶은 스님은 오는 22일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참조해 서류를 작성,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생명 살리는 돈’ 만든 정목스님
익명독지가 후원 4억 전액 보시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스님(사진)이 익명의 독자가로부터 건네받은 4억원을 저소득 환우 수술비로 전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목스님은 지난 4월 정각사 법당에서 이름과 연락처 없이 ‘정목스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돈은 돈일뿐 생명력을 입히고 싶다. 환자들 수술비로 써달라”는 편지와 더불어 1억원 수표 4장이 담겨져 있었다. 정목스님은 익명의 독자가의 뜻에 따라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을 찾아 저소득계층 어린이 수술비로 2억원을 전달했다. 나머지 2억원도 ‘작은사랑’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인타 기자 parkintak@bulgyo.com

팔각보상계등/팔각등/태양열LED 전등

신제품
출시



팔각보상계등(大 5색)



팔각등



태양열LED 전등

태양열 전지

태양열 전등은
1. 태양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편리함.
2. 1일 충전으로 필라멘트 전구 2~3w의 빛을 7~8시간 유지함.
3. 자동센서부착으로 태양열 전등은 어두워지면 점등되고 환해지면 소등 됨으로 별도 조작이 필요 없음.



불교용품의 모든 것
이화불교사

문 의: (02)734-1383, (02)720-1700
F a x: (02)732-1935
주 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9
E-mail: ewhabud@naver.com



항금연등

▼석불전 인등 20,000등

▼외부전선 연등 50,000등

▼대웅전 내부전선 연등 5,000등

●도선사

(인등, 법당내 외부 전선시공 및 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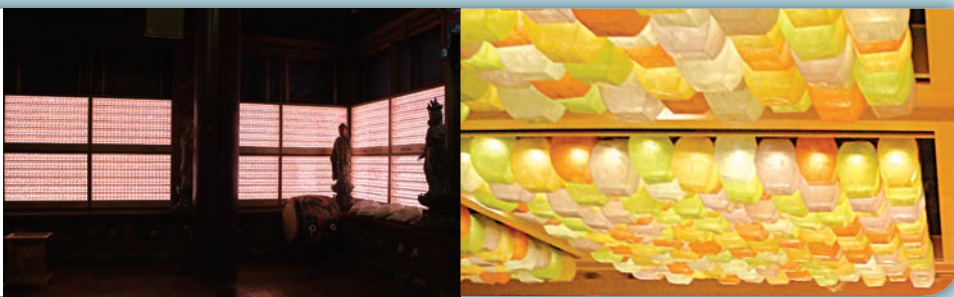


▼봉은사(만불전)

▼법화정사(자동승강장치 5,000등)

●봉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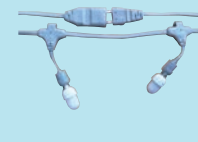
만불전 시공



●법화정사

자동승강장치 시공

●L.E.D 전선·전구 전문(국내 직접 생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내부전선(불연성)



외부전선(와이어부착)



LED전구



이화전기·기획

대표 박경돈 합창

문의 (02)725-2393

zumharsh@hanmail.net